

박경철의 '오디세이아'



관점의 차이

다시 그리스가 주목받고 있다. 그리스 트 측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서다.

납유립 경제위기의 중심 국가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문제는, 최근들어 수면하로 잦아드는 모양새였다. 한데 그리스의 사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겼다. 강경좌파인 시리아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시리아의 당수이자 그리스 총리인 치프라스는 당선 일정보다 그동안 받은 유로존의 경제 지원 조건을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그리스는 채권의 70%를 가진 유로존에 추가 부채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부채를 탕감해야 이자 부담이 줄어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그리스의 부채 규모는 고금리 국제 발행의 여파로 스스로 성장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세가 높아 적자가 나는 가게와 같은 처지가 그리스 경제다. 이에 대해 유로존은 완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특히 유로존의 중심 국가인 독일의 반대는 강경하다.

유로존 중앙은행의 최대 주주는 독일이다. 다시말해 중앙은행의 적자는 독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는 뜻이다. 더구나 그리스가 망하거나 유로존을 탈퇴하면 업하고 설친 채무관계에 의해 유럽의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은 주변국의 딜레마다. 결국 최선은 적절한 수준의 추가 지원을 통해 그리스가 남은 빚이라도 제대로 갚게 만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방만한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밀린 집세를 탕감하라 했더니 그 돈으로 인테리어를 고치고 회식을 해버리면 다시 약속환의 구조에 빠져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은 그리스를 약동, '폐쇄'라 생각한다. 결국 유로존 나아가 독일의 요구는 그리스의 강력한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그리스는 이를 거부하며 추가 지원을 요구한다. 그럼 그리스는 알려진 것처럼 단지 절면피어서일까? 그리스 국민은 뻔뻔하게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포퓰리스트를 총리로 뽑는 선택을 한 것일까?

여기서 지난 IMF 경제위기 상황의 우리나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우리나라는 과거 그리스와 같은 위기를 맞았고 IMF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 받았다. 가까운 거리의 이웃인 일본은 야멸차게 지원을 외면했다.

우리는 그 조건을 고스란히 받아들였고, 그 결과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 불안정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이 자리잡게 되었다. 은행과 대기업의 최대 주주는 외국인으로 바뀌었고 외국 자금은 마음대로 드나들며 'ATM(현금자동인출기)'이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한국시장은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되었다.

겉으로는 회복과 성장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상당 부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반대로 말레이시아는 우리와 다른 선택을 했다. 구제금융 지원 조건을 강하게 거부했고 버텼다. 당시에는 힘들었고 더 늦었지만 결국 말레이시아도 위기를 넘기고 오늘날 탄탄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물론 구조는 우리와 다르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독일 등 유로그룹이 요구하는 공공개혁이나 국유자산 매각 등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선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삭감, 공무원 축소 등은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국유 교통수단의

민영화 등 민생과 직결된 사항은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리스의 지하철과 철도, 버스, 항만은 국가가 운영한다.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이며 급식도 대학까지 무상이다. 심지어 이것은 외국 유학생도 동일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기타 몰가는 유럽에서 가장 싼 편이며, 그리스 학생들은 부자든 빈자든 능력만 있으면 끝까지 교육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한데 그리스인의 생각은 다르다. 위기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빈자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다. 또 교육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므로 교육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바로 그리스 이슈가 다시 불거진 이유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우리는 그리스에 돈을 던지겠지만 그것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일 뿐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리스와 독일은 과연 어떻게 타협할까. 또 누가 양보할까. 이것이 최근 그리스 문제를 읽는 핵심이다.

(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

社說

예산 과다에 형평성 잃은 한옥 조성사업

전남도가 9년간 한옥 1885채를 짓는데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보조금, 용자금에 기반시설 사업비까지 지원해 지나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원금에 비해 소득 창출은 보잘 것 없어 형세 남바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한옥 보급을 위한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1호당 보조금 4000만 원과 금리 2%의 용자금 4000만 원, 마을당 경관개선비 3억 원 등을 지원해 왔다고 한다. 보조금·용자금에 들어간 예산은 2007년 15억5000만 원을 시작으로 9년간 동안 무려 690억59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도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반시설 사업비로 289억 원을 투입했다. 25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광주·전남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지역에서 걱정하는 수요자들의 수도권 '역류(빨대현상)'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유동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부산이나 대구 등의 사례를 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KTX 효과' 높일 전략 서둘러 개발해야

호남선 고속철도(KTX) 개통에 따른 광주·전남지역 발전방안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의료와 소풍, 관광, 문화 등 지역사회 각 분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아 초기의 적절한 대응은 물론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광주·전남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지역에서 걱정하는 수요자들의 수도권 '역류(빨대현상)'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유동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부산이나 대구 등의 사례를 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광주·전남의 빈약한 인프라는 기대만큼이다. 토론회자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지역민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타지역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것부터 크고 작은 변화가 전체에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도권의 내로라하는 수준 높은 대형

병원 분원, 교육기관을 유지해야 하고 소핑센터도 입점해야 지역민의 수도권행을 막을 수 있다. 최고급 호텔과 식당을 갖춘 역사관·관광지를 개발해야 수도권 주민들이 몰려 온다. 지역 산단 기업의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하고 광주송정역과 전남 주요 도시 간 항공·철도·버스 등 연결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오는 9월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도 KTX 효과와 연계할 수 있는 이 지역만의 독보적인 자산이다. 따라서 막연한 브랜드에 매달릴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콘셉트를 개발, 전당을 찾도록 해야 한다.

지역발전은 위한 이론적인 근거나 일반적인 청사진은 누구나 내놓을 수 있다. 문제는 수도권과 치열이 다투고 나야 없는 특별한 것이 절실하다. 계획 수립을 넘어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광주·전남이 힘을 합쳐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서남권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것이다.

종교칼럼



김영철 광주 남동 5·18기념성당 주임신부

'가만히 있으라' 이제 그만 합시다

너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 순간만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신부인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봤고 그분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삶을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으로 너그럽고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거지들을 환대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침밥 때에 보리쌀 한 줌이라도 얻고자 오는 거지는, 반드시 우리 밥상에 함께하는 식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어김없이 동냥 자루에 보리쌀 한 뭉치를 부어주셨습니다. 여필종 부라 했던가요. 할머니도 할아버지의 모습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너그럽고 자상하게 대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면 동네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무뎠뎠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니 잔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삼대독자로 태어났어도 한 번도 안아주질 않았습니. 늘 다가가기 어렵고 대화하기 힘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부가 되고 나서 아버지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 더 이상 손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가 되기를 반대했다가 신학교를 가니 그렇게 좋아하시고 신부가 된 뒤에는, 늘 하시던 말씀대로 '인생이 자기 것이요 죽음은 하느님께 맡겼다. 자신이 선택한 삶은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한다'라고 힘박 아닌 힘박을 하시던 분이 당신의 죽음을 앞에선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소 소신대로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때가 나와 아버지가 가장 가까이 친구처럼 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귀한 시간이었다고 신부로서의 삶에 많은 것을 깨닫도록 하는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 1년6개월여 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말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건만 남의 말 하듯 그렇게 당신의 죽음과 장례와 미래에 대해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며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한편, 여기에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16일 아침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습니. 학생들, 선생님들, 이사 가던 가족, 해어진 가족을 만나러 가던 이, 신혼여행 가던 이, 환갑여행을 떠난 죽마오우들, 아

르바이트 가던 이, 화물차 기사들 등.

이들의 죽음 앞엔 화가 납니다. 나 자신에게, 사회에, 정치에, 국가에, 그리고 이 세상에. 왜냐하면 그런 살인이나 마한가 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정, 불의, 비합리적인 부조리로 일어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과 같은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다운 삶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죽음 또한 품위 있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애 같은 이들의 삶을 인간의 탐욕과 불의와 부패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정당하게,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꿈을 펼치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죽을 권리로, 죽일 권리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모든 부당한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천하에 알린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제 그만 합시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꾸꾸고 살니까? 우리는 어떤 죽음을 원할니까? 나의 삶과 죽음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기 고



김형주 광주김치박물관 학예사

광주 마을공동체 활성화 필요한 이유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주도의 원칙 아래 마을어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고,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현장에서의 주민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고취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를 열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마을학교'를 설립하여 활동기를 양성 배출하는 것이다. 마을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공동체사업의 선봉에 나설 활동가를 육성하고, 아울러 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주민교육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소규모 커뮤니티센터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상주하면서 수시로 회합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체정신은 농업이 주업이던 전통사회에서 기반하여 수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승되어야할 우리 미풍양속이었다. 그

러던 것이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이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해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풍조의 팽배에 따라 급격한 공동체주의의 약화를 가져왔다. 공동체정신의 희석은 주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적인 정이 메마른 도시적인 삶의 세계로 내닫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모래알처럼 원자화 된 '나'가 아닌 '우리는 하나'라는 정서적 공감대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광주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의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먼저,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조성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주민 스스로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치역량이 강화됨으로써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인간적인 체질을 느낄 수 있는 지역공동체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도시생활은 다소 각박하고 따뜻한 인정이 부족한 것

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골목에서 아파트입구에 이웃들과 얼굴을 부딪쳐도 거의 인사를 나누지 않으며 이웃에 어려움이 닥쳐도 모르는 체하기 심상이다. 주민들 간의 교류강화는 도시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를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끝으로, 공유경제의 실천과 기부공동체를 실현하는 마당을 제공한다. 공유경제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단체나 모임 등에 무료 또는 염가로 대여함으로써 공공재산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상생모델이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 많은 주민들이 자신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이웃에 봉사할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아무쪼록, 대도시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펼쳐지는 광주마을공동체사업이 차차 단체 관계자의 치밀한 사업설계와 아낌없는 지원, 활동가·시민들의 헌신적인 지지력과 적극 참여를 통하여 주민자치의 지속가능한 성공모델로 정착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피아노 연주로만 듣던 쇼팽의 연습곡 '혁명'을 색다른 조합으로 들었다. 첼로, 더블베이스, 드럼, 재즈피아노,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 '나는 마리아'는 여기에 바이올린과 보컬이 더해졌다.

광주 시내 커피숍에서 열린 '클래즈 앙상블' 연주회 현장. 정식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는 클래식과 재즈를 결합한 색다른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 휘몰아치는 드럼과 피아노, 첼로가 어우러진 재즈풍의 '혁명'은 클래식과는 또 다른 느낌이

끝나고 환호성을 지를 뻔 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관객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

드럼 연주가 귀에 꽂히는 영화는 또 있다. 개인적으로는 '유펙레쉬'보다 이 영화의 드럼 연주가 더 인상적이었다.

영화 '버드맨', '유펙레쉬'는 드럼 연주 자체가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 반해 '버드맨'에서 드럼은 슬쩍슬쩍 끼어들 뿐이지만 영화를 지배한다. 퇴물이 된 히어로 영화 주인공이 브로드웨이에서 재기를 노리며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그린 스토리에 더 마음이 가기도 한다.

'그레이트티'에 이어 2년 연속 아카데미 촬영상 받은 엠마누엘 루베즈키의 영상과 마이클 키튼 등의 연기도 좋다. 흥행이 저조해 급세 간판을 내렸지만 다행히 오는 4월 2일부터 광주극장에서 다시 상영될 예정이다.

술 붓, 심장이 터지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당장 영화관으로 달려가 보시라. 꽃망울만 터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슴도 터져버릴지 모르겠다. '클래즈'의 공연(30일 오후 7시30분 광주주요문화관)에서는 '날 것' 그대로의 음악을 만날 수 있으니 이 또한 추천한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드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문화체육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